

진달래방패벌레

변 병 호 / 임업연구원 산림곤충과장

O] 해충은 잎의 즙액을 빨아 먹기 때문에 잎을 조기 낙엽화시켜 수세를 쇠약하게 할 뿐 아니라 잎을 백색으로 만들어 경관을 저해시킨다.

- **분포** : 한국, 일본, 대만, 미국
- **가해수종** : 진달래, 철쭉나무, 겹철쭉나무, 영산홍
- **가해상태** : 성충과 약충이 잎 뒷면에 군서하며 수액을 빨아 먹으므로 잎 조직이 파괴되어 잎 표면까지도 백색의 반점이 나타나며 피해가 심할 때는 나무 전체가 백색으로 변화된다. 잎 뒷면에는 흑갈색의 점 모양으로 된 똥과 벌레의 탈피각이 다수 부착되고 성충과 약충(若虫)이 한데 섞여 있으므로 응애류의 피해와는 쉽게 구별된다. 이 해충으로 인해 나무가 고사되는 일은 거의 없으나 나무의 수세가 쇠약하게 되며 미관을 해칠 때가 많다.

형태 : 성충의 몸 길이는 3.5~4mm이고 머리는 작고 갈색이며 몸 전체는 흑갈색이고 배면(背面)은 회색의 방패모양을 하고 있다. 날개는 거의 투명하고 망상의 시맥(翅膀)이 발달되어 있으며 접으면 X자 모양의 갈색무늬가 된다. 약충은 부화 당시 체장이 0.4mm정도이며 무색이고 배의 양쪽에 돌기가 있다. 발육할수록

원통형의 몸은 폭이 증가하고 각부에 속상(棘狀)의 돌기가 발달한다. 날개는 3령부터 보이기 시작하며 체색은 흑갈색을 띤다.

생태 : 1년에 4~5회 발생하며 성충이 낙엽 사이 또는 낙엽 밑에서 월동한 후 다음해 4월에 나와서 잎 뒷면 조직내에 알을 1개씩 산란한다. 약충의 발생은 불규칙하여 5월부터 가을까지 있으며 이때 성충도 함께 보인다. 환경조건이 적당하면 약충이 20일 후에 성충이 되고 성충의 알은 5~7일 후에 부화된다. 통풍이 잘되지 않고 고온 건조한 조건일 때 많이 발생한다.

방제법 : 이 해충의 발생 초기인 5월에 카보입제, 에카친TD입제 등의 토양시용제를 비료주는 방법과 같이 뿌리 주변을 파고 묻어 주면 이 해충의 발생을 장기간 억제할 수 있다. 해충이 전면에 발생했을 때는 메프제, 디디브이피를 1000배로 희석하여 잎 뒷면에 고루 살포한다. 이들 약제는 잔류기간이 짧으므로 이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기간에는 10일 간격으로 연속 살포하는 것이 좋다. ■



약충



성충



피해를 받은 잎 표면(表面)



피해를 받은 잎 뒷면